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10.25 유혈의 무악골 대첩

1977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 학내시위



박성훈_ 연세대 화학교학과 76학번.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상임전문위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인슈케이프 대표이사(현)

1977년 가을은 유신독재가 극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긴급조치9호가 발동될 무렵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연세대 학생운동권도 초토화됐다. 특히 1975년 연세대 개교 이래 최대규모의 시위로 일컬어지는 연세대 4.3 시위로 인해 당시 학생운동권세력인 총학생회, 민족문화연구회, 인간걱정반, 목하회 등의 지도급 선배그룹이 거의 다 제적되거나 군대로 가 학교를 떠났다.

SCA(연세기독학생회)는 긴급조치9호 아래에서 살아남은 유일하다시피 한 학생조직이었다. 따라서 긴조9호 시대 연세대 학생운동의 지휘봉이 SCA로 넘어온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다(신동호, <긴조9호세대 대탐험41>, 뉴스메이커 597호 p93-94, 2004.11). 1976년 당시 SCA는 이대수, 김철기, 윤문중, 이창규, 구성애 등 75학번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직간접의 지도하에 강성구, 우원식, 장신환, 노영민, 오성광, 김거성, 박성훈 등이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75학번이 주도하던 1976년도에는 그렇다 할 만한 학생시위는 없었고 주로 서클 단위의 학습토론과 조직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76년 겨울 SCA 도시봉사단 MT의 활동내용이 불

온하다 하여 대다수 도봉단원들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가 하면 심지어 서대문경찰서 소속 사복 형사들이 학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주하는 등 유신독재의 억압은 극도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반면 암울한 77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선배그룹이 되어버린 75학번과 76학번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시위를 준비하기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고, 4월 19일엔 백지를 나눠 주는 것으로 시위를 대신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학내 위치한 운동주 시비 앞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조출한 기념식으로 시위를 대체하기도 하며 76년 상반기 한 학기를 보냈다. 한편에선 77학번 후배를 포함한 세미나조직의 강화를 꾀하고 다른 한편에선 다음 학기 학생시위를 주도할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인자를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했다. 타 대학과의 연계는 주로 KSCF, EYC 등 전국규모의 기독교청년조직들을 매개로 하여 경험과 정보가 공유되었다. 특히 학내 조직이 박약한 당시 연세대로서는 가을 학기에 타 대학과의 파도타기식의 연이은 대중투쟁과 아울러 대규모 시위 이후에 곧바로 학내에 단과대별로 핵심적인 언더서클을 조직해 나가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껴안고 있었다. 선전선동에 의한 대중적 투쟁이 우선이나, 장기적인 조직적 핵심역량강화가 우선이나를 두고 75, 76학번 간에 이견과 논쟁이 있었으나, 서로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로 결론짓고, 외부적으로는 타 대학과의 공동보조를 맞춰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연세대의 형편에 맞는 2학기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대중적이고 공개조직인 총학생회가 없어진 지금 이런 공개투쟁과 공개적 운동의 장은 이미 공개화된 연세기독학생회(SCA)가 총학생회의 그러한 기능을 대체해 주어 전선을 넓게 확장해 주는 역할을 맡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연세대는 기독교 학교라 어떤 폭압적 상황에서도 유일무이한 기독교학생서클을 없앨 명분이 서질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공개적이고 선도적인 역할과 보호막(우산)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에선 문과대를 중심으로 단과대별 언더서클의 조직과 아울러 탈출반, 인간걱정반, 평화문제연구회 등 다소 성격이 사회과학서클의 성향을 지닌 공개조직들의 이념적 강화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의 시기를 1977년 가을 학기로 본 것이다.

77년 봄 4.19 시위가 불발로 그친 뒤 본격적으로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박성훈(화공 76, SCA), 윤후덕(사회 76, 평화문제연구회), 서한석(경제 76, 인간걱정반), 김상봉(철학 76), 오

성광(교육76, SCA) 등등 단과대별, 서클별 차기 리더십을 위한 소모임이 조심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 또한 공개조직인 SCA는 여름봉사활동을 예년처럼 도시판자촌봉사활동과 농촌봉사활동으로 나눠 각기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마친 후 차기 리더십 교체준비를 가다듬고 있었다. 언더서클에는 별로 안맞을 것 같으나 품성 좋은 우원식을 차기 SCA 전체 회장감으로, 이론적으로 예리한 노영민과 차기 도시봉사단장 후보인 박성훈 등이 골간을 이루어 SCA를 이끌어 가고 75학번을 위시한 선배그룹이 세미나의 좌장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구도였다.

세월은 빨라 어느덧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대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서울대에서 먼저 학생시위가 일어나고 뒤이어 연세대가 그리고 순차적으로 타 대학으로 번져 나가자는 의지가 모아져 갔다. 그러다 10월 초 서울대에서 시위가 터졌다. 다소 우발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흐름을 연세대가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정작 시위를 하고 학교를 떠나주길 바랬던 선배그룹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76학번 중에서 찾아야만 했다. 당시 운동인자가 적은 연세대 입장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런 시위 전술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 그리고 지금 데모 군중의 최대공급층인 1, 2학년은 불행히도 데모리는 것을 한번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다. 방법도 모르려니와 어느 정도는 데모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을 세대였다. 따라서 이들에겐 적절한 예열과 예행이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성급히 한방으로 대형시위사건으로 몰아가려고 욕심내다간 시위 자체가 실패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두 번에 걸친 시위 계획이었다. 첫 번째 시위는 초라하게 단독범으로 시행하고 다만 그 이후 바로 입소문으로 다음 시위까지 분위기를 계속 조장하고 상승시켜 가다가 분위기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10일 정도 후에 그때에도 최소인원 1, 2명으로 2차 데모를 촉발시키면 아마도 그 때에는 압축된 휘발유가 폭발하듯이 엄청난 자연발생적 동조세력에 의해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휴교령이 일단 목표치였다. 그러면 이 공백기간을 빌어서 늦은 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코아멤버들이 데모 이후에 발견된 잠재성 있는 친구들을 각자 필드에서 엮어나가 교육하고 조직화하길 기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78년도에는 훨씬 풍성하고 다양한 연세대 운동권의 토양을 맞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1차 데모를 할 사람부터 막힌 것이었다. 특히나 1차 데모는 역사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미수 사건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규모의 시안이었다. 이때 정말 군소리 없이 자기를 헌신한 이가 바로 노영민(경영76,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다. 당시 노영민은 SCA내에서도 총명하고 이론적이어서 차기 SCA를 지도해 나갈 재목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친구였다. 그런 친구를 징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977년 10월 13일 노영민은 대강당 3층 서클룸에서 창밖으로 유인물을 뿌리며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외쳤다. 불과 10분도 채 안돼 검거되었고, 비슷한 시간에 김겨성(신학76, 현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목사)은 신학대 강당에서 노영민이 제작한 유인물을 나눠주며 낭독하였다. 비록 삼시간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였지만 그들은 맡은 바 사명을 너무도 충실히 감당했다. 그 후 약속한 대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번져나갔고 약간은 전설처럼 신비감과 아울러 우리 자신은 아무 것도 못했다는 묘한 자책감의 여운을 풍긴 채 10여 일을 보낸다. 이 사이 전혀 뜻하지 않은 유인물이 교육대 화장실과 계단에 누군가에 의해 배포되었다는 소문도 있어 분위기는 사뭇 절정을 향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차후에 감옥에 가서야 밝혀졌지만 교육대내 유인물 배포 사건은 이대수의 사주에 의해 오성광이 제작 유포한 것이었다. 이제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한번의 위기가 왔다. 많은 사람이 디-데이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정작 2차 시위를 감행할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평소 노영민(경영76,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절친했던 우원식(토목76,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더욱 흥분되어 있었다. 차기 SCA 회장을 맡아 꾸려가야 할 처지임을 납득한 연후야 그 자리를 피했다. 이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자기를 온전히 바쳐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나타난 이가 바로 강성구(경영76)이다. 그는 당시 연좌제가 실제 작용하던 유신시절에 공무원인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 집안에서 군대에 보내려고 휴학을 시켜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 여전히 등하교하면서 이 시대의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있고자 했다. 그러던 그가 2차 시위 주동자가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분연히 나선 것이다. 당시 시위는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는 우리 측에서나 서대문경찰서 측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훈(응통75, 전 경인문고 대표)을 파트너로 삼았다. 구체적인 시위 계획은 봄부터 몇 차례 시도해보면서 시뮬레이션해 본 경험이 있어 긴 구상이 필요치 않았다. 바로 행동에 들어간 강성구는 주위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연락을 끊고 이상훈과 함께 단둘이서 유인물 제작과 플래카드 준비 및 사전답사 등을 착착 진행하였다. 그러나 거사 예정일인 10월 24일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다가 교문 앞 수위실에서 상주하고 있던 서대문경찰서 형사에게 임의동행되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 것이다. 처음엔 정보가 새나간 줄 알고 낙심하였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담대하게 딱 잡아떼었더니 그들도 소문과 분위기가 하도 심해 예방차원에서 데리고 있는 거라고 웅색한 변명을 하고 오후 늦게 풀어주었다. 역사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음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연세대는 미션스쿨인 관계로 전학생이 채플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 채플이 끝나고 대강당에서 학생이 반쯤 빠져 나왔을 때 강당 꼭대기 층에 있는 박물관에서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인물을 뿌리며 아래 학생들을 향해 10여 분 정도 외치다가 아래에 있는 형사들이 모두 강성구를 잡으러 올라가면 그 공백을 틈타 아래에 가만히 있던 이상훈이 그때 나타나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는 군중들을 선동하여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향하도록 추동하는 것이었다. 하나 유의할 것은 지난번 노영민 김겨성 시위 때에는 노영민이 10분도 채 안 돼서 잡혔지만 이번만큼은 최소한 10분 이상은 지탱하여 충분히 대중을 선동하여, 아래 광장에서 2차로 선동하는 이상훈이 보다 수월하게 대중을 이끌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그는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였다.

강성구와 이상훈의 치밀하고도 성실한 헌신은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되어 그날 시위는 기대 이상의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다. 전투경찰의 과잉진압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거의 전교생이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시위도 과격양상을 띠어 페퍼포그차가 전복되고 무전기가 탈취되는 등 쌍방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시위대는 연세대를 넘어 이화여대로 가서 그들에게 유신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를 같이 외치고, 계속해서 서강대로 진입했다가 다시 연대로 돌아오는 등 총 4시간에 걸쳐 신촌 일대를 해방구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이튿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의 1면에 대서특필 되었다. 철저하게 국내 언론이 통제되었던 시절에 그나마 당시 학내시위현장에 들어와 취재하던 일본인 신문기자에게 우연히 건네준 유인물 원본이 취재현장기사와 더불어 전문이 게재되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연세대 시위대가 저녁 무렵 서강대 안에서 구호를 외친 뒤 자진해산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3시간 동안 캠퍼스를 해방구로 만들고, 신촌로터리를 '점령' 했으

며, 이화여대, 서강대에까지 무혈입성한 기념비적 시위였다(신동호, <긴조9호세대 대탐험 45>, 뉴스메이커601호 p98, 2004.12). '77연세민주수호결사투쟁선언 사건' '10.25 연세대 유혈데모 사건' '무악골 대첩' 등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긴급조치9호 발동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가장 극렬했던 학생데모로 학생운동사에 기록됐다(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상기 신동호 글에서 재인용).